



1 프랑스 매트역 앞 도로에는 그 중앙에 보도와 버스정류장이 설치돼 있다.  
 2 네덜란드 레이던역 앞의 보도의 넓이가 차도보다 2배 이상 넓고 주변에 3~5층 상가가 배치돼 있다.  
 3 지나가는 사람들로 한 예술가가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시가지.  
 4 영국 에딘버러의 가로에는 언제나 젊은이들이 가득하다.  
 5 영국 런던 타워브릿지교를 향하는 가로의 중앙은 수로가, 그 양편은 보행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6 주택가 화단·보도·가로수·차도 구성된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가로.  
 7 노면전차가 주요 교통수단인 로테르담의 중심가 가로는 그 중앙에 도보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21>

유럽편 '도시와 가로'

색다른 경관·문화로 손님 맞는 '도시의 응점실'

도시의 모습을 대표하는 핵심요소는 건축물과 가로다. 건축물은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이며, 가로는 그러한 건축물이 들어선 곳을 연결하거나 미리 수요를 감안해 건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건축물의 디자인이 곧 도시의 개성을 좌우하고 가로의 표정은 도시민들의 삶을 투영하는 거울인 셈이다.

유럽의 도시에서 이 건축물과 가로는 관광자원이다. 각 대륙은 물론 유럽 내의 도시민까지 끌려온 관광객들은 거리를 돌아다니며 자신이 겪지 못했던 색다른 경관과 사람, 음식, 장면 등에 매료된다.

가로 공간은 옛 것과 지금의 것에 의해 분명히 구별돼 있다. 중세와 근세에 지어진 건축물, 문화시설, 골목길 등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구도심의 가로와 고층신식 건축물, 편의시설, 대로 등 '지금'을 보여주는 신도심의 가로가 차별화돼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것은 개발수법, 건축물 및 시설물 디자인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어느 도시나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기억'의 것은 다른 도시와 공유하거나

바꿀 수 없는 그 도시만의 것으로, 그것에 따라 도시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도시를 찾는 외국인들이 그 도시의 새로운 '지금'이 아니라 옛 '기억'들을 찾아다니는 것은 당연하다.

광주의 구도심이 변해가는 모습은, 그러나 신도심, 그 자체다. 최근 '기억'들을 되살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고층아파트로 대표되는 건축물이 과연 광주를 상징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영국 에딘버러의 가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지도였다. 자신이 서 있는 장소에서 어디로 갈 수 있는 지, 주변에 무엇이 있는 지를 한 눈에 볼 수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에딘버러 출신인 코난 도일 경과 그의 대표적인 셉록 홈즈에 대한 설명이 자리하고 있다. 또 이곳 어느 가로에서도 젊은이들이 있었다. 때로는 시끄럽고 걷는데 조금 방해가 되지만 그들은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이야기하고 소비하면서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존재였다.

옛 거리의 역사 그대로 보존...도시만의 특색 간직  
 보행자 중심도로 상점·광장 등 친숙한 시설 준비  
 구석구석 이야기 하고 소비하며 도심에 활력 제공

영국 런던의 타워브릿지(Tower Bridge) 주변 가로 한 가운데에는 수로가 있다. 타워브릿지교를 향하는 길에 수로를 놓고 양편에는 문화시설과 상업시설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도시의 새로운 명소가 됐다. 영국 글라스고의 뷰캐넌거리는 양쪽으로 꼭 이어진 옛 건축물과 옛 디자인을 감안한 새로운 건축물들이, 거리 중앙은 가끔 차량도 있으나 세계 각국에서 찾는 사람들로 파묻히고 있었다.

네덜란드 라이덴과 프랑스 리옹의 가로 표정 역시 옛 건축물과 지금의 건축물이 그 높이나 디자인에서 조화롭게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도로의 주인이었다는 점은 글라스고와 똑같았다. 도심 내 가로는 노면전차와 자동차, 자전거, 사람들로 뒤섞이는 다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었고 외곽의 경우 광주와 마찬가지로 길 한 쪽은 자동차들이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소통에는 지장이 없었다. 차도가 아닌 가로수로 우거

진 보조와 자전거도로를 우선하는 가로 정책은 이들 도로의 넓이에서도 나타났다. 차도를 넓히기 위해 보도를 좁히는 경우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시내 중심가에는 차량진입 금지봉이 반드시 설치돼 있으나 응급차, 경찰차, 택시, 일부 상가용 차량 등은 전자카드를 대면 금지봉이 내려가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로에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거리카페는 물론 예술공간, 분수대, 소규모 광장 등이 곳곳에 두는 등 나름의 원칙을 갖되 융통성 있는 배치가 돋보였다. 가로가 단순히 목적지에서 목적지로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가로 자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나 프랑크푸르트는 거리와 건축물에 환경적인 측면을 좀 더 배려한 것이 특징이다. 거리 곳곳에 가로수와 꽃, 풀밭 등 녹색을 가미하고, 건축물은 태양열, 태양광 등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친환경 디자인을 도입했다.

/글·사진=윤현석기자 chad01@kwangju.co.kr



깨끗하고 건강한 캐나다  
 청정자연에서 탄생한 -  
**Natural Factors** (내추럴팩터스)  
 드디어 한국에서도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 캐나다에서 태어난  
 50년 역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50여 개국으로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에도 우수한 품질확신!

2010년 12월 내추럴팩터스를  
 국제약품이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에서 건강을 찾아 연구하는 캐나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내추럴 팩터스  
**50년 내추럴팩터스 역사를 담았습니다!**



캐나다 대표 브랜드 내추럴팩터스는 수십만 평의 자체 허브농장에서 재배한 자연원료를 최첨단 자체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기술진이 탄생시킨 고품질 명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은 50여년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선택!-내추럴팩터스입니다!

Natural Factors 한국총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48번지  
 http://www.kukjepharm.co.kr  
 제품문의 : (031) 781.9081 (고객지원팀)